
 KIND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3. 18(수)	
담당 부서	융복합 사업실	담당자	• 과장 김종국 • ☎ (02) 6746-7387
보 도 일 시		2020년 3월 18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KIND, 국토부 「K-City Network」 사업 우수탁협약 체결
- 정부간협력(G2G) 기반 해외 스마트도시 사업 발굴·지원 -

-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, 사장 허경구)는 국토교통부 (장관 김현미)와 16일, 해외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의 발굴-개발-투자 쉼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「K-City Network」 사업 관련 우수탁협약을 체결했다.
- 2018년 6월 출범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인 KIND는 지난 2019년 대외경제장관회의 발표된 「해외수주 활력 제고 방안(제203차, '19.2)」 과 「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방안(제206차, '19.7)」 의 일환으로, 스마트시티 포함 고부가가치 융복합 사업전담 부서를 신설한 바 있다.
 - 또한 지난 6일에는 KIND는 국토부의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업무 관련 ‘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’으로 선정되었으며,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「K-City Network」 사업을 전문적·체계적으로 관리 하게 된다.
- 「K-City Network」는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을 위해 사업 발굴 및 개발, 기술 전수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한국 주도의 스

마트시티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이다. 금번 체결한 협약은 국가간 협력기반(G2G)의 시범사업, 초청연수, 금융지원 등 스마트시티 해외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기술 지원과 함께 스마트시티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협력센터 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.

- KIND는 이미 기존에 국토부로부터 「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」, 「해외인프라협력센터 설치 및 운영관리」 등 2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왔다. 특히 「해외인프라도시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」 업무는 타당성조사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초기 개발비 부담을 줄여주고, KIND의 투자 검토로도 연계하는 선순환을 보여준 바 있다. 금번 「K-City Network」 사업은 그간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스마트 도시개발, 스마트 솔루션 분야에 특화하여 정부간 협력을 통해 해당국 수요에 따라 기본구상, 마스터플랜(MP) 또는 타당성조사(F/S) 등은 물론, 초청연수 등 한국의 스마트시티 개발경험도 함께 지원하고, 향후 투자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- KIND 관계자는 “해외 스마트시티 사업에 대한 KIND의 전문성과 투자/금융 역량을 활용, 「K-City Network」 사업을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‘한국의 대표 수출상품’으로 도약시키고, 실제 사업으로 성사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”는 의지를 밝혔다.

- 한편, 1월 31일부터 해외 정부/공공기관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 「K-City Network」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은 이달 20일 신청접수를 마감할 예정이다. 공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(www.molit.go.kr), 스마트시티 종합포털(www.smartcity.go.kr), KIND 홈페이지(www.kindkorea.or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융복합사업실 김종국(☎ 02-6746-738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